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 난 벅타이를 던져 버릴 거야

-드류 리더-

내가 늙었을 때 난 벅타이를 던져 버릴 거야.
양복도 벗어 던지고, 아침 여섯 시에 맞춰 놓은 시계도 꺼 버릴거야.
아침할 일도, 먹어 살릴 가족도, 화낼 일도 없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늙었을 때 난 들판으로 나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물가의 강아지풀도 건드려 보고
납작한 돌로 물수제비도 떠 봐야지.
소금쟁이들을 놀래키면서.

해질 무렵에는 서쪽으로 갈 거야.
노을이 내 딱딱해진 가슴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각들로 만드는 걸 느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비꽃들과 함께 웃기로 할 거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산들에게
노래를 들려 줄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할지도 몰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내가 늙어서 벅타이를 벗어 던졌을 때 말야.

◀그땐 그랬지▶ 이 병을 아시나요?

왼쪽의 병을 오른쪽의 맥주병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땃병”이라 불리던 저 큰 소주병을 시골에선 석유를 담은 병으로 사용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오던 그때, 시골에서는 가게에서 석유를 팔았지요. 주인 아저씨가 깔때기에 부어줄 때 풍기던 석유냄새는 구수하기까지 하였고 땃병 가득히 채우면 일주일동안 등잔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석유를 먹으면 뱃속의 회충이 죽는다 하여 땃병에서 석유를 따라 먹기도 했습니다.

때마다 심지를 돌아 올리고 고을음이 묻은 호야를 지푸라기로 조심스럽게 닦던 그 시절에 비해 지금은 몇배 밝은 전깃불아래서 살지만 왠지 아름다움과 낭만은 그때가 더 환하게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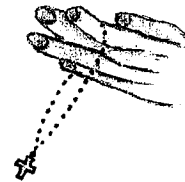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6월 19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십자가 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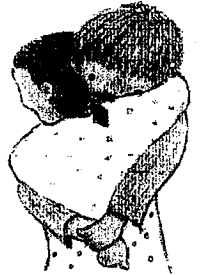


탐사를 떠난 몇목 한 척이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육지와 승선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랜 사투 끝에 살아 돌아온 그에게 남겨진 것은
입은 옷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살아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남편은 탐사로 인한 손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후, 벗어 놓은 옷을 세탁하던 아내
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떠날 때 아내가 주머니 속에 넣어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아, 맞다! 지금 생각해보니 또 하나 얻은 게 있어.
집채만 한 파도 사이로 하얗게 부서져 튀겨 올라온
물보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혼자보기엔 아까운 장관이었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모습이 눈앞에 계속 아른댔어!”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와중에 왜 그런 여유가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씀따라 행하기▶

가나안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인품따라 행하기▶

얼굴에 미소를 띄워라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써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4 (사 3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19장	
기 도 Pray		지찬영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6:1-8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3) "희망의 사람 이사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0장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월의 예배위원◆

◆6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5	정덕수	김용석	7구역	구역장.인도,담당
12	정희자	김영경	8구역	나무십자가
19	지찬영	김윤숙	황존직	나무십자가
26	최재학	김인희	9구역	나무십자가

	주 일	예배와 모임
5	성찬주일	구역예배(10)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식사친교주일	
26	이삭줍기주일	선교회.당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아동,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금 6:00	청년부:토 저녁 4시

6,25 한국전쟁이 있던 주간입니다. 어느 이름없는 산골짜기에 누워 죽어서 말해야 했던 국군 소위의 빛나던 계급장도 이제는 녹슬어 없어질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흔의 아픔이 너무 컸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더 굳게 해 주어야 겠습니다.

-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
*추웠던 그 해 겨울, 5일장터에서 쇠고기 국밥에 김치하나로도 눈 녹아 질척이던 오후를 행복하게 보내었습니다
- "추운 날의 특별새벽기도회" (예고) <일시: 27일(월)- 1일(금). 새벽 5:55분>
*날이 추우면 가족을 난로 주위로 모으지만 인생이 추우면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록 성전에 앞드려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기도를 위한 예배당 Door Open 5:20분>
- 제2회 자녀들의 겨울 콘서트 "아버지,어머니 감사합니다" (예고)
<일시> 7월 16일(토) 저녁 6시 <장소> 오uckland 음대 Hall
*자녀들에게 여러 음악적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께 그동안 얼마만큼 실력이 늘었는지를 부모님을 모시고 보여 드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금까지 배워 오고 있는 자녀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신청>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 박성천 협동목사 개인주관 선교회 창립예배 <선교회 이름:"MATE">
<일시> 25일(토) 저녁 6시 <장소> Hall
*해외에 사역중인 선교사들과 개인적으로 연관을 맺어주는 선교회입니다. 뜻을 함께 하고 싶은 교우들의 참여와 격려 바랍니다
- 민지영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그동안 네팔에서 사역 후 빈자의 나라 "캐시미르" 에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서신이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한 국적 환경이 전혀 없는 곳에서의 힘든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교회서 월 \$200을 지원
*갈보리교회 선교지원정책: 조금씩 여러곳을 지원하여 많은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교보다 한 곳이라도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착한 시인들▶ 어 머 니

모린 호킨스

너를 갖기 전에도 너를 원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사랑했어
네가 태어나기 한 시간 전에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었다
이건 분명 생명의 기적이야

이 보다 더 진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품고는 있었지만 꺼내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맞아"하며 무릎치게 만드는, 그래서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 같습니다.
발돋움하여야 이빨을 뺏아줄 수 있을만큼 아이가 어느새 컸다는 어느 엄마의 대견스러워하는 얼굴에서, 몇일간 감기로 고생하는 막내의 아픔에 어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느 엄마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